

거점시설 확충으로 창업기업 성장 지원

전주시,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열어 당선작 선정... 2023년 12월 완공 목표

전주시가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최근 팔복동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길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성장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창조공간, Up-Clouds'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건축설계 공모는 지난해 10월 조성된 전주혁신창업허브의 창업동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이 당선작에 대해 "기존 전주혁신창업허브와의 연계와 조화를 이뤄 잘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기업의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계하고, 공유와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층별 지원공간들을 마련하면서 사용자 중심의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계획된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시는 이 작품을 출품한 건축사와 함께 이달 중 설계역역에 착수해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2,65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에는 기업 입주시설, 교육·컨설팅 등 네트워

크 공간, 각종 제조장비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창업 이후 성장이 필요한 유망기업에게 입주공간과 시장출시제품 제작 및 양산 시스템 구축공간이 제공돼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기업 친화형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노송동에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전북대학교 내에는 오는 2024년까지 산학공동 실험실인 산학융합플라자를 조성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 개관한 전주혁신창업허브 내에는 오는 2023년까지 복합소재가공지원센터와 소공인 집적 지구 공동기반시설도 건립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업성장의 거점이 될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해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와 대학과 연계한 산학융합플라자 등 지역경제를 살릴 거점공간이 속속 들어설 것"이라며 "지역의 유망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축설계 공모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 전 과정이 유튜브(전주시 LIVE)로 생중계됐다.

/김윤상 기자

'청년심포,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전주시, 15일까지 미취업 청년 60명... 3개월간 총 150만원 지원

전주시가 구직 실패로 인한 불안과 무기력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심리 상담과 활동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15기 청년심포, 프로젝트'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

전주시를 대표하는 청년 지원정책인 '청년심포, 프로젝트'는 전문 심리상담기관을 통한 개인별 심리검사와 그룹별 집단상담이 제공되며, 구직활동비용과 생활비로 인한 고민을 줄여줄 수 있도록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들은 포레들과 하루를 같이 보내며 공감하는 힐링캠프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청년심포 예sey 작성, 심리상담 전후 정신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심리검사

등을 통해 재도전과 도약을 준비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달간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재학생이나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참여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6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TNW109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한 뒤 오는 30일 선발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에코시티에 야외무대 설치한다

전주시, 내달 말까지 공연·축제 진행 상업지역 내 광장에 조성

전주 에코시티 상업지역 내에 길거리공연, 가뭇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야외 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 말까지 송천동 에코시티 상업지역 내 광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야외무대 설치 장소는 송천동2가 1327-16번지 일원으로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과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무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역역을 마무리한 상태로, 무

대는 우선 시에도 이용 가능한 파고라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에코시티 상업지역 내에 야외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서 상가연합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사방향을 결정했다"면서 "야외무대가 설치되면 상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전주시가 현충일인 6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추념 행사를 가졌다.

시는 이날 오전 낙수정 군경묘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보훈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다.

최소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하는 것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전몰 호국 용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렸다.

이와 관련 시는 현충시설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낙수정 군경묘지의 낡은 철제 정문을 철거한 뒤 묘지 내 전통 한옥양식의 제가 및 기와 담장과 조화를 이루는 숲속삼문 형식의 한옥형 정문을 개축했다. 또 올 연말까지 송천동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 인근에 전라북도·전주시 보훈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7대 원장 공개모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8일까지 진흥원을 새롭게 이끌어갈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제7대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정부부처·기관, IT·CT 유관단체, IT·CT기업 등 채용 직무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IT·CT 산업 전반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며 IT·CT 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등이다.

응시 희망자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완산구 아중로 33)에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혁신팀(063-281-4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농생명 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탄력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최근 지역혁신기관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응모해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11년간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제품화하는 비임상시험 관련 기술을 축적해온 연구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주·전북 지역의 농생명 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정보 부족, 시설·장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기능성 식품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농생명 기업들에게 농생명 자원에 대한 비임상시험(세포·동물평가)을 통한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를 지원키로 했다.

연구원은 이번 기능성·안전성 평가 지원을 통해 지역의 농생명 기업들이 각각의 농생명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병준 연구원장은 "비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전주·전북의 농생명 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의약소재산업화팀(063-711-1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